

# 이정선 시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질타

## 2024 국감 현장

###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면접 점수 조작 지시 전면 부인  
담당 공무원 숨방망이 징계 지적  
글로벌교육박람회 방문객수 공방

광주·전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대학교, 전남대병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해 불거진 고교 동창생 감사관 채용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 질타를 받았다.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정선 교육감에게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해당 감사관이) 원서접수하고 뒤에 보고를 받아 알게 됐다”며 “2년 전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특별히 그것때문에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몇 안 되는 고교 동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전남도·전북·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감사관 채용 비위사건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창이어서 반가웠고, 할 수 있으면 더 우호적으로 평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남 얘기 하듯 말하니 당혹스러울 정도다. 국감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인데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오죽했을까 싶다. 때문에 인사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질의에도 이 교육감은 점수 조작 지시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

을 고수했다.

그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면접 직후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부탁했다고 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 개입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 교육감은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부탁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숨방망이 징계’ 논란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결정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앞서 인사위원회는 구속영장이 기

각되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자고 판단했다”며 “관련 있는 조항이나 기준에 의하면 1개월 정직도 중징계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고 재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자칫 독선과 불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교육행정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여수 일대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

육박람회’ 방문객 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김문수 의원은 “165억원이 투입된 행사로, 추산 방문객이 교육청은 40만명, 경찰은 20만명, 교사들의 의견은 15만명이다”며 “방문객 수를 과대하게 포장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관람객을 45만명으로 발표했다가 과대 산정이라고 지적받았는데 점검해보니 오히려 더 많이 왔다는 데이터를 받았다”며 “관광·관람객 수를 체크하는 방식의 계산으로는 69만명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가 무료로 완전 개방돼 통로가 여러 곳이었다”며 “한쪽 통로만 계산해 관람객이 15만명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박람회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동원됐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교육감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박람회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한 이념 논쟁, 전남교육청 농산어촌유학사업 호응, 시도별 교원정원 감축 문제,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교육청별 애로사항, 학교 건물 내 저조한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 “군정 안정·새로운 영광 미래 만들 터”

### 장세일 영광군수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군민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영광군 도약’으로 그 믿음에 부응하겠습니다.”

장세일(사진) 제52대 영광군수가 1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군수 업무에 돌입했다. 장 군수는 취임사에서 “군민들이 군정 소임을 맡긴 것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민생을 지켜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군정공백을 안정시키고 영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통해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고 영광발전과 군민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성찰



강한 복지 영광 실현 △농산물 가격보장제로 농어민 경영 안정 △체형·채류형 관광 명소로 관광산업 경쟁 등을 꼽았다. 선거기간 큰 화두였던 ‘투명·공정한 조직문화’에 대해선 인사평가제 도입과 여성·특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했다”며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고 더 청렴한 모습으로 더 정직한 모습으로 마음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군정 운영 방안으로는 △영광사랑지원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평생연금 시대 개막 △모든 세대가 행복한 건

### 조상래 곡성군수

“군수라는 엄중한 소임을 시작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곡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조상래(사진) 제48대 곡성군수는 17일 오전 군청 소통마루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군수 업무에 돌입했다.

조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곡성군은 곡성, 석곡, 옥과 3대 권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고장이다. 각 지역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균형 잡힌 성장 및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곡성이 함



께 발전하는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 더 큰 곡성’을 비전으로 다섯 가지에 초점을 맞춰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섯 가지 군정 운영 방안으로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이 살기 좋은 곡성 △관광벨트 연결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부자농촌 1번지 곡성 건설 △차별 없는 촘촘한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대한민국 문화도시 민속 문화의 섬 진도 미래비전 선포

아리랑  
문화예술제  
진도군보배실  
문화예술제  
아리랑  
문화예술제  
2024.10.25.-27.



code 코드 아리랑  
만개 아리랑  
萬開 滿開

2024.10.25.(금) 오후 5시부터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야외특설무대

아리랑 주제의  
시공간 융복합 공연  
아리랑의 과거 ~ 현재 ~ 미래

1부 원형·민속의 3개 시도 아리랑  
2부 모던·퓨전·크로스오버 아리랑  
3부 포스트모던·다원예술 아리랑

주최 전남남도 Jeollanamdo Jindo 진도군 협력 [사]한국예총 진도지회  
주관 全南日報 진도문화도시센터